

제주국제금융센터 추진전략 재조명*

강 철 준**

<목 차>

- | | |
|---------------------|---------------------|
| 1. 머리말 | 6. 제주 국제금융센터 추진의 의의 |
| 2. 국제금융센터 추진의 의의 | 7. 역외금융센터의 성공 사례 |
| 3. 국제금융센터 추진 추세 | - 말레이시아 라부안 |
| 4. 서울 국제금융센터 추진의 문제 | 8. 제주국제금융센터 추진 방향 |
| 5. 역외금융센터에 대한 오해 | |

1. 머리말

그동안 한국에 국제금융시장 또는 국제금융센터를 창설 육성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찬성론과 반대론이 계속 맞서왔다. 찬성론은 국제금융시장을 육성함에 따른 실익이 크고 여건도 충분하다는 적극적 찬성론과 필요성과 여건이 충분치 못하나 필요성과 정당성이 크므로 추진하자는 소극적 찬성론이 있다. 반대론은 국제금융시장을 국내에서 유지함에 따른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극단적 반대론에서부터 장기적으로 여건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여건 불비론이 있다. 극단적 반대론은 IMF 금융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금융권의 보수층 세력에서 공감을 얻고 있다. 즉 설부른 금융시장 국제화가 경제위기를 초래했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 추진은 아주 점진적이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판세

* 본 논문은 제주발전연구원과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주최한 '제주 경쟁력 강화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workshop'에서 발표된 것을 발전시킨 것이다. 원고 초안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신 고충석 원장, 고성보 박사, 양덕순 박사, 김태운 박사와 한국은행 제주본부 박간 본부장, 안예홍 팀장, 제주대학교 고호성 교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원고의 모든 오류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저자 본인에게 있다.

** 한국금융연수원

를 어렵해보면 금융학계, 당국, 업계에서 반대론이 우세한 상태로 보인다.

그런데 최근 서울 파이낸셜 포럼에서 동북아 금융센터 건설을 제시하면서 상황이 급전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서울 파이낸셜 포럼은 전직 경제부총리, 금융통화위원, 등을 역임한 인사들과 금융기관 최고책임자 및 연구기관 장 등이 2001년 10월에 결성한 비영리단체이다. 회원의 구성으로 보아 국내금융시장정책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포럼에서는 지난 11월 초 “아시아 국제금융중심지로서의 한국: 비전과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이하 ‘포럼보고서’) 동 보고서는 금융산업은 가장 유망한 성장산업이며 금융산업의 발전없이 서비스산업중심 경제로의 이행은 매우 어렵고 금융산업의 발전없이 전체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현재의 세계경제 변화를 관찰해 볼 때, 어느 나라도 세계금융시장에서 전략적인 위치를 확보하는데 실패하게 되면, 그 나라는 금융산업의 약화는 물론, 국내경제의 쇠퇴를 경험하고 세계금융시장에서 종속적인 위치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¹⁾.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하에 민관합동의 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한국에 국제금융시장을 신속하게 육성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역외금융센터보다는 런던모형의 종합적 국제금융센터를 추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역외금융센터를 추진해온 제주도에서는 지난 10월 도지사를 포함한 대규모 방문단이 말레이시아 라부안 역외금융센터를 방문하였다. 라부안은 아일랜드 더블린과 함께 지난 1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역외금융센터로 평가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두 금융센터를 벤치마킹하여 앞으로 국제자유도시계획의 핵심사업 중의 하나로서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으로 보아 국내에 국제금융센터 또는 국제금융시장을 육성하는 것은 이전에 비해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2. 국제금융센터 추진의 의의

국내에 국제금융센터를 추진하는 첫번째 의의는 국제적 금융중심지가 됨에 따른

1) ‘포럼보고서’, p. 23.

직접적 이익이 막대하다는 데 있다. ‘포럼보고서’에서는 그러한 이익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²⁾.

- 1)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 2) 투자의 효율성 증대에 따른 경제성장의 지속
- 3) 정부, 기업, 가계가 필요한 투자자금 조달비용의 감소
- 4) 고부가가치 고용의 증대
- 5) 서비스 및 지식기반 산업중심 경제로의 이행 촉진
- 6) 지역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역할 제고
- 7) 외부충격에 대한 탄력성 제고
- 8) 과세기반의 확충
- 9) 국가안보의 강화
- 10) 국가이미지, 국제적 위상 및 영향력 제고

대부분 강철준(2001)에서 언급된 것이지만 다음의 두 가지는 특별히 언급될 필요가 있다. 우선 첫째로 금융센터를 구축하게 되면 한국은 외부의 금융충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즉, 국제 금융센터 내에 우수한 외국기관이 진출할 경우, 그들은 한국의 금융안정이 자신의 이익과 부합한다고 볼 것이기 때문에 유사시 즉각 한국을 도울 태도를 취할 것이라는 것이며 1997년과 같은 외환위기는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싱가포르와 홍콩 모두 최근의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한 반면 주변국들은 그러한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³⁾.

둘째로 금융서비스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한국이 금융센터를 구축하는 것은 고임금 일자리의 수를 늘려줄 것이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경우, 아시아에서 보다 선도적인 금융센터가 되면 10만개의 추가적인 일자리가 발생한다고 추정하였다. 싱가포르는 금융서비스산업의 비중이 곧 GDP의 1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비중은 5년 전의 7%, 오늘날의 10%에 비해 더욱 높은 것이다. 현재 싱가포르의 금융부문은 고용의 7%, 세수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더블

2) ‘포럼보고서’, p. 4.

3) ‘포럼보고서’, p. 131

런던 금융센터의 설립을 통해 비슷하게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였다. 런던의 금융센터는 연평균소득 10만 달러 이상인 일자리를 100만개 이상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⁴⁾.

국제금융센터 추진의 두 번째 의의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유지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금융혁신(financial innovation)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대부분 금융혁신은 국내금융시장에서 새로운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이해관계와의 마찰이나 충돌이 적은 국제금융시장에서 먼저 발생한다⁵⁾. 또한 대부분 국가의 금융당국은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영업이나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영업에 대하여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어서 한 국가의 국내시장에서 탄생한 금융혁신이 타국시장으로 전이되는데 국제금융시장이 촉진제 역할을 한다. 실제로 1960년대 이후 금융시장에서 혁신적인 상품이나 거래제도는 한 국가의 감독에 전속되지 않는 유로달러시장이나 유로본드시장에서 가장 많이 탄생하였다. 예를 들어 FRN(Floating Rate Note), NIF(Note Issuance Facility), Syndicated Loan 등이 그것이다. 또한 미국내에서 발생한 주택저당권(Mortgage Backed Securities)거래를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증권화 바람으로 발전시키는 데에는 미국의 투자은행들의 국제영업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물론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금융혁신에 참여하는 것이 항상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주는 것은 아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발생전에 한국정부는 단기금융회사들에게 국제금융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대부분 회사들은 국제금융시장에서 단기 자금을 조달해서 파생상품과 고수익 정크본드에 경쟁적으로 투자하였는데 모두가 부실화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거래는 그동안 참여가 제한되었던 국내기관 입장에서는 혁신적 금융거래였지만 당시 국제금융시장 수준에서는 일반화된 거래였다. 오히려 당시는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시스템 개발 경쟁이 국제적 금융기관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었는데 만약 한국 단기금융회사들이 이들 위험관리 시스템 도입에 같은 수준의 관심을 기울였다면 회사 전체가 부실화되어 시장에서 퇴출되는 불행은 막을 수 있었는지 모를 일이다. 불행하게도 당시 한국금융기

4) '포럼보고서', p. 130.

5) Molyneux and Shamroukh(1999). p. 56.

관의 경영자나 대주주들 사이에서는 부실금융기관은 정부가 책임을 져줄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위험관리가 금융기관의 주요 업무중의 하나라는 인식을 하지를 못하였다.⁶⁾

세 번째 의의는 아직까지 동북아지역에는 세계적 금융기관들이 자유롭게 영업을 하는 국제금융센터가 설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 지역의 금융시장이 국제적 규모로 성장한 다음에는 인근 지역시장이 국제금융시장으로 발돋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동북아 지역에서 일본은 동경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을 국제적 시장으로 키우고 오사카 증권시장에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주가지수 선물거래를 도입하는 등 지난 20년간 아시아지역의 국제금융 중심지가 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러나 계속되는 일본 금융기관의 부실화와 구조조정의 지연으로 외국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의 탈출이 이어지면서 국내금융시장으로 위축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 국제금융센터로서는 홍콩과 싱가포르를 꼽을 수 있다. 그러나 홍콩은 중국과의 정치·경제적 통합과정에서 정치적 불안정과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금융부실 등에 기인하여 그 세력이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싱가포르의 당초 홍콩의 공백에 따라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로 홍콩의 중국반환 이후 싱가포르의 국제금융활동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한다. 더욱이 싱가폴은 동북아 지역과는 비행기로 6시간이나 걸릴 정도로 떨어져 있다.

오히려 이 지역에서는 상해가 강력한 새로운 국제금융중심지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정부는 그동안의 경제성장과 막대한 외환보유액, 세계 4위의 대외무역 규모를 바탕으로 상해를 동북아지역 금융중심지로 키우기 위해 외환관리제도를 정비하고 외국인의 주식투자를 확대함과 동시에 포동지구에 대규모 부동산 투자를 계속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포럼보고서’는 한국도 동북아지역의 으뜸가는 국제금융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니 국가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안하고

6) 강철준(1998). p. 99.

있다. 현재 한국은 아시아지역의 국제금융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그러한 기회는 현재 진행중인 전 세계적인 금융환경의 변화, 세계에서 이미 13번째로 커진 한국의 경제규모, 그리고 세계 GDP의 약 20%를 차지하는 동북아 지역경제의 위상제고 등의 요인에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난 수년간에 걸쳐 한국이 보여준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가 일본이나 중국보다는 한국을 이 지역 경제중심지의 유력한 후보로 인정할 것이라는 것이다⁷⁾.

3. 국제금융센터 추진 추세

국제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직간접적 이익에 대해 각국 정부가 절실하게 인식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국제금융센터를 육성하기 위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쟁은 이미 국제적 명성을 얻은 런던, 뉴욕, 프랑크푸르트, 홍콩, 싱가포르 등의 전통적 국제금융도시 뿐만 아니라 암스텔담, 파리, 시카고, 아일랜드 더블린, 시드니,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라부안 등 신흥 금융도시들간에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들 도시들은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외국 투자자들의 국내 금융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외국금융기관 또는 기업들의 영업거점 또는 자금본부 등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국내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의 국제금융활동이 되도록 자국시장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이들 도시들이 국제금융센터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벌이고 있는 노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우선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기존 이해관계보다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고 신상품과 새로운 거래기법의 도입에 개방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들 도시들은 모두가 신금융상품거래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네거티브 규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예금자나 소액투자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소매금융거래에 대해서는 경제적 약자 보호 차원에서 규제를 하지만 금융기관간의 도매금융거래에 대해서는 규제를 거의 하지 않고

7) '포럼보고서' pp. 5-6.

자율책임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둘째로는 금융시장 감독체제를 정비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것은 불법금융거래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엄격한 시장원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금융시장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제적 공신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특히 마약이나 테러조직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대한 국제적 감시와 공동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자국 금융시장이 이들 불법금융거래와 관련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입증하는 일이 각국 감독당국의 중요 아젠다가 되어 있다.

감독체제의 정비는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 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금융기관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투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외국 금융기관과 기업이 자국금융시장을 이용해서 자금조달과 투자를 많이 하도록 제도 개선과 마케팅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다. 몇몇 나라에서는 금융감독당국에서 금융과 관련된 편의 뿐만 아니라 이민 비자 발급, 사무실 및 아파트 임대, 자녀 취학, 직원 소개, 오락 및 휴양시설 운영 등 외국 금융기관의 진출에 따른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주는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갖추어 놓고 있는 경우도 있다.

셋째로는 신정보시스템기술의 활용 경쟁이다. 런던, 뉴욕 등 선진 금융센터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들은 전세계적인 통합 위험관리 시스템 등 경영정보 시스템 구축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정보시스템 예산규모가 금융기관의 대외신뢰도 평가에 영향을 줄 정도이다. 또한 정보시스템 기술은 후발 금융센터가 선진 경쟁력을 단시간에 갖추는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독일 선물거래소는 브로커에 의존하고 있던 기존의 시카고, 런던, 뉴욕 시장을 제압하기 위하여 100% 전자체결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이후 각 금융센터에서는 전자시스템 거래소 도입 경쟁이 전개되었다. 전통적 금융센터의 브로커 조직에 대항할 수 있는 시스템기술은 인터넷 브로킹 시스템, 통합 콜 센터 등의 형태로 아일랜드, 저지섬 등에서 번창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금융정보시스템 기술의 발전은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전통적 금융센터만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었다.

넷째로는 고소득 금융전문가들이 근무 및 주거에 불편이 없도록 쾌적한 생활환경

을 조성하려는 노력이다. 세계적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고소득자들이 많다. 따라서 이들이 근무지를 선택할 때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는 수준 높은 생활환경을 갖추기 위해서 각 도시가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급 아파트, 고도의 문화 시설, 세계적 호텔 체인, 국제 공항, 국제적 수준의 자녀 교육시설, 휴양 관광 의료 인프라 등이 그것이다.

4. 서울 국제금융센터 추진의 문제

‘포럼보고서’에서는 한국이 동북아에서 런던 스타일의 종합적인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금융중심지를 목표로 해야 한다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분야에서 5가지 정책과제, 非경제분야에서 4가지 정책과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⁸⁾.

경제분야 과제

1) 정부역할의 전환

정부는 과거 정부주도의 경제개발과정에서 비롯된 직접적인 자원분배자의 역할에서 탈피하여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장조성자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초등교육, 기본 국민건강 보장, 효과적인 법 집행 등과 같은 공공재를 제공하는 역할은 지속해야 한다. 이러한 정부역할의 변화는 한국이 올바른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데도 필수적이다.

2) 기업 및 금융 개혁의 완성

97년 이후 추진된 기업 및 금융 부문의 구조개혁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

8) ‘포럼보고서’ pp. 10-11.

껏 정부주도 경제개발시대에서 비롯된 유산을 완전히 청산하지는 못했고, 특히 모든 한국의 기업 및 금융기관들이 세계적 수준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추진되어야 할 개혁과제가 많다.

3) 규제 및 감독 패러다임의 전환

그 동안 한국정부가 추진해 온 금융규제 완화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지만, 아직껏 금융감독의 예측가능성과 실효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남아 있다. 따라서 모든 규제는 보다 단순화되고, 감독도 더욱 투명하게 이루어져 한다. 또한, 규제의 모호성에서 기인한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독자와 피감독자간의 대화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4)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한국에 진출하려는 외국 CEO들에게는 가장 큰 우려의 대상이다. 또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한국의 노동생산성을 여타 OECD국가에 비해 낮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특히 금융부문에서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 온다. OECD회원국 중 금융산업에 노조가 있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

5) 조세제도 개선의 필요성

한국의 조세제도는 이 지역의 여타 경쟁국에 비해 너무나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한국은 전체 조세제도를 개혁하고 간소화함으로써 불필요한 마찰과 금융거래 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거래에 잡다한 세금이 부과되는 한, 한국의 자본비용이 증가하고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매력도 감소한다. 이에 더해, 한국의 법인세율이 홍콩, 싱가포르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 소득에 대한 한계세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외소득에 대한 세금부과는 외국 기업인들로 하여금 한국에서 비즈니스하는 것을 기피하게 만들고, 나아가 국내적으로는 납세자들의 탈세유혹을 조장한다. 이에 더해 높은 법인 및 소득 세율은 전체

세계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많은 경제적 왜곡을 초래한다

비경제분야 과제

1) 법률서비스시장의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

한국의 법률서비스시장은 세계수준급의 국제금융센터를 지원하기에는 질적, 양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아직도 많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가지 방법은 법률시장의 개방이다. 법률시장의 개방은 다양한 법률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전체 규제제도의 개선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된다.

2) 이민정책의 개선

한국이 세계수준급의 국제금융중심지로 부상하려면 높은 수준의 전문인력이 각 분야 걸쳐 많이 필요하게 된다. 특히 초기에는 이러한 수요는 국내 교육기관에만 의존해서는 충족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현재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을 근본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최근에 정부는 국내 장기체류를 희망하는 외국 전문가들의 비자신청 절차를 개선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이것만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지는 않는다.

3) 생활환경의 개선

한국의 생활환경은 외국의 전문가들을 유치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다. 특히, 교통 체증, 공해, 높은 주거비용, 아동교육시설의 미비, 영어사용의 한계, 오락 및 문화적 기회의 부족 등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거주하는데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큰 요인들이다. 서울은 생활환경으로 볼 때, 아시아 40개 도시 중 14위를 차지하고 있다. 생활환경의 개선은 외국기업 유치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바로 한국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도 크게 기여한다는 것이다.

4) 한반도 긴장완화

최근 북한과 남한간의 긴장감이 크게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남북관계는 여전히 외국인의 주요 우려대상으로 남아있다. 따라서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한국의 기업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된다.

또한 '포럼보고서'에서는 명시적으로 지적을 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국제금융중심지를 기존에 금융기관들이 밀집한 서울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역외금융센터 추진 전략에 대해서는 복잡성과 위험에 대한 연구가 보다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⁹⁾.

그러나 '포럼보고서'의 결론은 런던식의 종합금융센터를 서울이 처음부터 추진할 때의 위험과 비용 부담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인 것 같다. 우선 실증적 경험에서 볼 때 서울에서 국제금융센터를 추진하려는 시도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식의 전략을 택하지 않는 한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그 동안 국내금융기관의 국제금융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97년 경제위기 이전까지 상당히 유지되었다. 그러나 수익성을 낼 수 있는 핵심업무기술 없이 단지 외형적 실적에만 치중하다가 막대한 손실만을 초래하기 일췌였다. 현재 국내은행 전문가들은 대부분 국제금융업무는 안하는 것이 은행 수익성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국제금융센터가 되기 위하여 외국금융기관을 국내에 유치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수적으로는 50여개 은행, 30여개 증권사 등 국내 은행과 증권사 수를 모두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은 서울에서 고부가가치의 본격적 국제금융업무를 서울에서 펼치기보다는 단기적 이익이 큰 일부 영업부문에만 특화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 한국과 관련된 금융업무에만 치중하고 있어서 국제금융업무의 핵심인 비거주자를 위한 유로금융업무는 취급할 인력과 조직을 서울에 두고 있지 않다.

두 번째 서울금융시장의 문제는 금융혁신(financial renovation)을 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2차 대전 이후 세계적 금융센터들은 모두 창의적 금융혁신을 실천한 곳들이다. 런던은 유로달러와 유로본드시장을 창설하였으며 미국은 각종 펀드상품 개발, 채권 Repo거래, 저당증권 및 자산 유동화 상품 도입, 시카고는 금융선물거래, 스위

9) '포럼보고서' p. 98.

스는 프라이빗 बैं킹, 홍콩과 싱가포르의 업소아 금융 등 각 센터마다 혁신적인 상품이나 거래제도를 개발하였다. 이들 센터는 또한 타 금융센터에서 개발한 금융혁신을 신속하게 수용하였다. 그러나 서울 금융시장은 강철준(1999a)에서 지적하였듯이 외국의 금융혁신 상품이나 제도를 받아 들이는 데에 평균적으로 10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을 정도로 금융혁신과 거리가 있다.

이것의 원인으로서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다. 첫째는 서울 금융시장은 일본식의 계몽주의적 법제도와 관행에 오랫동안 젖어 있다. 정부가 금융시장에서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야 하고 따라서 정부가 시장에 대해 사사건건 간섭하는 관치체제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금융시장은 거의 대부분 영미식 법제도와 관행을 따르고 있다. 특히 영·미식 금융시장이 채택하고 있는 전면적인 금융시장 진입과 퇴출 자유화는 정치·사회·문화적 요인까지 가세되어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한 민상법과 각종 금융관련 법령들을 국제금융센터 운영에 맞게 영미식으로 개편하는 작업은 물리적으로도 방대한 작업이기도 하지만 기존의 법학자들에게 국제금융시장 현실을 설명하고 납득시켜야 하는 지극히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다.

두 번째 원인으로서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 영역별로 이해관계가 고착화되어 있는 점이다. 이 이해관계는 각 영역별로 정부당국 조직, 업계, 협회, 연구기관, 노조가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식으로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서 어느 한 쪽에 불리한 변혁이나 특별한 이익을 낳는 조치는 당장 시장에서 거센 마찰과 갈등을 불러 일으킨다. 이러다 보니 금융시장 정책목표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향상보다는 시장안정에 주어질 수밖에 없고 관료들은 구조적으로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세 번째 원인으로서 금융관료들의 전문성 한계이다. 폐쇄적인 인사체제에 기인하여 미국과 영국과 같이 시장전문가들이 정책을 실제로 입안 집행하는 행정조직의 책임자로서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금융전문가가 관료들에게 그 내용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대책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때까지 장시간에 걸쳐 설득을 한 후에야 금융혁신이 수용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감안할 때 서울 국제금융센터 또는 한국 전체를 국제금융센터화하는 전략은 비용 부담이 막대하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이 사이에 상해나 동경, 오사카 등이 동북아 금융중심지로 부상할지도 모를 일이다. 즉,

선진국 수준의 국제금융시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제도 뿐만 아니라 세제, 출입국관리제도, 통관제도, 교육제도, 산업정책, 소송제도, 상거래 계약관행 등에서 종합적인 여건을 조성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국내법제도와 독립된 체제 도입이 불가피한데 서울시장에서 이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정책비용 부담이나 부작용이 너무 크고 불확실하다. 또한 국제금융센터의 발전 속성에서 볼 때 동일 시간대에서 먼저 성공한 센터가 시장을 선점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현재의 법제도와 환경 내에서 최소한도의 변혁만으로도 추진 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동북아에서 국제금융중심지가 된다는 목표를 구체적 사례로 든다면 이것은 한국기업과 관련된 국제금융활동 또는 한국인의 해외투자활동을 한국에 있는 금융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외국기업이 외국에서 필요한 금융을, 외국금융기관이 한국내에서 알선해주는 역외금융업무(offshore finance operation)가 주가 되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일본기업이 중국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한국시장에서 조달하는 일을 호주 금융기관이 담당하는 식의 업무가 다반사로 이루어져야 한국이 국제금융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다. 만약 현행의 제도환경적 제약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어렵다면 일본기업이 중국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한국 내에 주소를 둔 호주 금융기관이 유럽에서 조달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다. 이것은 전자에 비해 그리 큰 작업이 아닐 것이다. 한국의 특정지역에 진출하는 외국금융기관이 이러한 읍쇼아 금융활동을 하는 데에 충분한 메리트를 가질 수 있도록 세제와 금융규제면에서 개선을 이루면 될 것이다.

이러한 읍쇼아 금융활동은 국내 기존 금융업간의 영역 다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서울을 벗어난 지역에서 국내금융시장에의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은 기존 금융의 중심지인 뉴욕과 동경에 역외금융센터를 육성하려고 시도하였으나(미국: IBF(International Banking Facility: 1984년 설립), 일본: JOM(Japanese Offshore Market: 1987년 설립)), 모두 실패한 적이 있다. 반면에 말레이시아는 수도 쿠알라룸푸르 시장을 국제금융센터로 키우는 대신에 기존 금융시장과 격리된 라부안을 선택하여 별도의 금융법률을 7개나 제정하여 국제금융센터로 육성하는 전략을 택함으로써 성공하였다.

‘포럼보고서’에서는 읍쇼아 금융센터를 발전시킨 이후에 역내·외 금융시장과 통

합할 때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 하였지만 실증 경험은 이와 정반대이다. 런던은 유로 달러 금융시장(대표적인 옵션아 금융임)을 국내 파운드 금융시장과 병립 발전시키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오히려 국내금융기관들을 국제화하고 국내기업들의 금융기회를 확대시켰다고 한다. 아일랜드 더블린과 말레이시아 라부안의 옵션아 금융센터는 일단 국제적 역외금융센터로서 발판을 굳힌 다음 현재는 국내기업 및 일반국민에게로 영업기반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5. 역외금융센터에 대한 오해

국내에서 국제금융센터를 추진하는 것을 계속 논의하기 전에 그동안 있었던 제주 역외금융센터에 대한 부정론을 재음미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부정론은 첫째로 제주는 국제금융거래 규모와 경험이 부족한 데다 다국적 금융기관이 별로 없으며 전문 인적 자원과 시스템이 결여되어 있고 규제는 심하다는 등 국제금융센터가 되기 위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과 둘째로 규제와 조세 혜택을 부여해서 옵션아 금융센터를 추진한다 해도 단순한 거래기장센터(bookkeeping center) 역할에 그칠 것이므로 제주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두 가지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첫째 이유는 논리적으로 결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금융센터의 형성과정에서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논리적으로 ‘닭이 있어야 달걀을 낳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달걀에서 닭이 탄생한다’고도 말할 수 있다. 다국적 금융기관이나 전문 인적자원 및 시스템 등 여건이 갖추어져야 국제금융센터가 성공한다고 할 수 있지만 국제금융센터가 가동이 되면 다국적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여기에 고용되는 전문인력 및 시스템이 갖추어질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세계 유수의 국제금융센터중 런던과 뉴욕을 제외하고는 자생적으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이다. 홍콩, 싱가포르 뿐만 아니라 시드니, 토론토 등 대부분 센터는 전세계 국제금융시장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있는 영국 출신의 전통적 금융 브로커 조직이 만들어 준 것이며 해당 정부당국에서 이들

을 유치하기 위해 규제철폐 등 다양한 혜택을 베푼 결과 성공한 것이다. 특히 홍콩, 싱가포르 등 국제금융센터 개설 초기에 아예 금융정책당국 책임자로 영국 금융전문가를 초빙하여 금융시장 거래 관련 법령이나 관습을 통째로 영국의 것을 베껴서 그대로 따라서 설계하도록 배려하였다. 심지어 싱가포르에서는 금융거래실습 훈련을 위해 100여명을 선발하여 1년씩 런던, 뉴욕, 시카고 등에 파견하기까지 하였다. 바하마, 케이만제도 등 오피쇼아 금융센터도 원래 금융센터 여건이 구비되어서 출범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영국의 금융 및 세무당국에서 국제금융거래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금융기관들이 이들 섬의 정부와 교섭을 벌여 개설한 것이다.

오피쇼아 금융센터가 단순한 기장센터로서 지역경제에의 소득유발 효과가 낮을 것이라는 주장도 오래전 얘기이다. 초기에 오피쇼아 센터는 모든 거래를 실질적으로는 런던과 뉴욕에서 하고 장부 정리만을 이들 오피쇼아 센터에서 처리하였다. 당연히 오피쇼아 센터에는 금융기관 점포도 직원도 있을 필요가 없었다. 오피쇼아 센터에서는 단지 인세(stamp tax) 수입만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와서 오피쇼아 센터의 운영방식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선 국제적 은행의 고객 변화이다. 국제적 은행의 업무는 전통적으로 대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corporate banking 업무가 주종을 이루었으나 근래에 와서는 돈많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private banking 업무가 번창하고 있다. corporate banking 업무는 대기업 재무본부가 집중된 런던이나 뉴욕 등 기존의 대도시 금융센터 중심에서 이루어지지만 private banking 업무는 혼잡한 도심보다는 여유 있는 고객들이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점을 간파한 국제은행들은 바하마나 케이만 군도와 같은 곳에 private banking 영업을 하는 점포를 설치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휴양도 하면서 개인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영업전략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오피쇼아 센터에 진출하는 금융기관 점포가 계속 늘고 있으며 동시에 직원과 고객의 왕래가 증가함으로써 오피쇼아 센터의 관광수입도 같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오피쇼아 센터에서 private banking 업무가 번창하자 각국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에서는 마약거래 등 불법거래 자금의 유출입에 대한 감시를 강화시켰다. 이 바람에 오히려 오피쇼아 센터에서 적발되는 불법거래가 본토 금융시장에 비해 적어지는 등 과거 불법금융거래센터로서의 이미지가 많이 바뀌고 있다. 또한 오피쇼아 금융센터의 안

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개인고객 유치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 자체적으로 금융감독기구를 강화하는 추세이기도 하다. 특히 금융실명제법이나 돈세탁방지법은 국제적 감독기관들이 인정하는 수준으로 제정 운영하고 있다.

역외금융센터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강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역외금융센터의 성장은 지속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 증권화(securitization)와 개인금융(private banking)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이 신탁영업과 자산관리영업을 위해 역외금융기관을 대부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오늘날 역외금융센터의 주고객은 후진국 투자자나 금융기관, 불법범죄조직, 부패한 정치가들이 아니라 첨단 금융기법과 세계적 영업망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 금융기관들인 것이다. 오늘날 증권화와 개인금융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데에는 역외금융센터가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역외금융센터로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곳들은 점차 거주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은행, 증권, 보험사로 등록을 받으려면 최소한의 직원이 실제로 거주하면서 사무실을 확보해야 하는 조건을 의무화하는 것이 일반추세가 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에 구좌를 개설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 확인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역외금융센터에 대해서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또 한가지 사실은 역외센터거래에서 적지 않은 혁신적 금융제도나 거래기법이 출현해 왔다는 것이다¹⁰⁾. limited life company, limited partnership, asset protection trust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limited partnership은 오늘날 국제적으로 설립되는 펀드의 대표적 형태가 되고 있다. 역외센터에서 금융혁신이 짧은 기간에 가능하였던 것은 지역이 한정되어 있어서 입법활동이 용이하였기 때문이었다.

6. 제주 국제금융센터 추진의 의의

제주에 역외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국제금융센터를 추진하는 일은 결국 한국에 동북아 금융중심지 후보를 하나 추가하는 것이므로 한국이 국제금융의 중심지로서 이

10) Brown(1999), p. 2.

미 앞에서 언급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략적으로도 세 가지 의의를 가진다. 첫째는 기존의 서울 금융시장을 국제 금융센터로서 발전 정착시키기 전에 우선 상해 등 여타 동북아 도시가 국제금융업무를 선점할 가능성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서울 금융시장이 기존 환경조건상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수용하기 어려운 금융혁신을 통제된 지역에서 실험을 해보거나 필요한 법령을 준비하거나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 금융시장이 국제화하는데 자극제로 삼을 수 있다. 국내 금융기관이 제주 국제 금융센터에서 영업을 하면서 그 노하우를 서울 금융시장에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서울의 금융기관이 제주 센터의 금융기관과 영업세아를 잃지 않기 위해서 경쟁 노력을 강화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에 국제금융센터를 추진하는 것은 제주경제에 직접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우선 자연보존적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다. 역외금융센터는 대규모 건설 공사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제주는 이미 국제공항과 국제적 수준의 관광호텔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환경을 훼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반면에 국제금융센터에 출입하는 전문인력은 대부분 고소득자로서 소비수준이 높아 제주관광산업의 부가가치를 크게 높일 것이다. 특히 제주 금융센터에 입주하는 금융기관은 일정 수 이상의 전문 인력을 상주시키도록 하면 많은 외국 관광객의 왕래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국제적 금융센터에서는 각종 회의나 세미나가 연중 활발하게 개최되게 되어 통역 등 회의산업의 부가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실제로 바하마, 버뮤다, Guernsey, Jersey, Cayman Island, 라부안 등은 모두 뛰어난 자연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소득 및 고용수준도 인근 지역에 비해 앞서는 등 금융센터가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보는 관광에만 치중해온 하와이와 지중해 연안 관광지는 급속한 자연훼손에 따라 관광산업 수입이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제주 국제금융센터의 추진으로 제주도민의 소득도 높아질 것이다. 영국 외무성의 서베이에 따르면 역외금융센터를 발전시킨 도시나 섬들의 주민소득은 OECD 국가들 평균소득보다 높으며 거의 완전 고용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¹¹⁾. 또한 최근

11) Secretary of State for Foreign and Commonwealth Affairs. Partnership for Progress and Prosperity, Britain and the Overseas Territories, March, 1999.

에 와서 국제금융당국에서 역외금융센터에서의 자금세탁행위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금융거래시 본인확인 의무를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외부인들의 금융센터 방문기회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관광수입을 증대시킬 여지가 더 늘어나고 있다.

이외에도 영어를 사용하는 첨단금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 제주도민의 생산성도 높아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제금융센터는 고임금, 고지가 환경 아래에서도 국제자유도시 구상이 지향하는 환경친화적인 국제 정보, 물류센터의 개념을 실천하고 고소득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구조를 만드는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7. 역외금융센터의 성공 사례- 말레이시아 라부안

말레이시아 라부안은 보르네오 섬 동북단에 붙어 있는 조그마한 섬이다. 면적은 제주도의 20분의 1에 불과하며 인구도 8만명에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 이 섬이 아시아 지역에서 최근 10년간 가장 성공한 금융센터로서 국제금융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라부안은 1990년 출범 당시 바로 이웃에 홍콩, 싱가포르 금융시장이 있어서 도저히 금융센터로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될 수 없는 곳이었다.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직항로가 없을 정도로 교통의 오지였으며, 금융기관 또는 금융전문인력, 국제변호사, 회계사 등이 라부안은 물론 인근 보르네오 지역에도 거의 없었으며, 외국인이 많이 왕래하는 국제관광지 또는 국제무역항도 아니었다. 더욱이 근처에 역외금융수요가 큰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0여년 만에 국제적인 역외금융센터로 성공하여 이제는 싱가포르를 위협하는 국제적 종합금융센터로 발전하고 있다.

라부안의 성공 요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① 중앙정부의 확고한 지원

라부안은 특히 싱가포르 금융시장 의존체제에서 벗어나 말레이인의 자존심을 세우려는 마하티르 수상의 집념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지식정보화사회에서 금융의 산업유발효과에 주목하고서 재무성, 중앙은행, 국세청이 합심하여 7개의 특별

법안까지 만들면서 라부안 금융센터를 지원하였다.

② 거주형 센터 지향

라부안 금융감독청(Labuan Offshore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LOFSA)은 단순한 명판만 유지하는 기관보다는 직원이 거주하도록 함으로써 불순 금융기관 및 기업의 진출을 막고 지역경제에의 유발효과를 제고하였다.

③ 영미식 금융감독체제 구축

라부안은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관계로 영어가 통용되고 있으며 會計基準(accounting standards), 事業慣行(business practices), 法律體系(legal system) 등이 영어권 국가의 기준과 부합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라부안에 진출하는 금융기관의 활동에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지에 전권을 행사하는 금융감독기관을 설치하였으며(one stop agent), 영미식의 엄격한 금융감독기준을 적용하여 마약자금, 테러활동자금 등의 불법자금 유입을 억제하였다.

④ 타 금융센터와 차별화된 니치로서 이슬람금융상품과 거래기법을 적극 개발하였다.

⑤ 은행, 증권, 보험, 투자신탁 등 특정 업무에 특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금융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역외금융센터를 처음부터 지향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로도모하였다.

⑥ 역외금융센터로서 충분한 법제도 뒷받침

라부안 금융센터의 운영만을 위해서 7개 법을 별도로 입안하였으며 라부안에 진출하는 금융기관의 해외소득에 대해서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등 신축적인 조세제도를 유지하였다. 또한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라부안에 진출하는 금융기관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8. 제주국제금융센터 추진 방향

(1) 이미 제주 역외금융센터는 출발하였음을 도민에게 홍보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선박등록특구가 인정되었으며 선박등록특구처럼 실질적인 비즈니스활동을 전세계에 걸쳐 하면서 선박의 주소지만 제주로 등록하는 것이

바로 역외금융센터의 대표적 역할이다. 선박 대신에 회사의 주소지 등록을 제주에서 하면 역외회사(offshore company)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역외금융센터를 추진하는 일은 그리 어렵고 돈이 많이 드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2) 우리보다 여건이 나쁜 라부안에서도 역외금융센터를 성공시킨 점을 부각한다.

교통, 기후, 생활여건, 호텔, 전문인력, 거의 모든 면에서 라부안보다 제주가 낫다는 점을 부각함으로써 여건불비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설득하여야 한다.

(3) 역외금융센터를 추진하는 것은 국제적 관광지로서 제주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 최선의 전략이다.

라부안의 사례에서처럼 역외금융센터를 발전시키면 왕래하는 외국인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국제적 관광지가 된다. 제주의 환경과 전통을 보존하면서 청정 환경과 고유민속가치를 극대화하는 고부가가치 관광 전략임이 인식되어야 한다.

(4) 거주형 역외금융센터 지향

단순한 역외회사를 제외하고 금융업 면허를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1인 이상의 직원이 거주하도록 하며 되도록 세계 200대 유명 금융기관을 유치함으로써 제주 국제 금융센터의 공신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5) 자유도시특별법상의 투자진흥지구 활용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의 투자진흥지구조항에 “기타 제주도지사가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 지정하는 면적 1제곱 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추가하여 라부안의 Financial Park와 같은 역외금융센터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지구안에는 사무실, 아파트, 쇼핑센터, 체육관, 호텔, 공연장, 회의센터, 기타 상가 등이 입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제주역외금융센터 추진사업은 특정 투자진흥지구내 부동산 분양사업의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다.

*제주 역외금융센터 1차 유치 대상

① 국내은행, 증권, 투신, 보험, 리스사의 국제영업부

- 외화표시 영업부문, 파생상품거래 등 신금융상품영업부문

②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지역 자금본부

- 세계 300대 기업안에 드는 다국적기업의 본부에 대해서 은행업 면허를 주고 제주도 밖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원천세 징수를 유예시킴. 결산시 법인소득에 대해서는 홍콩 정도의 세율을 적용.

③ 구조조정과정에서 사용되는 각종 paper company.

④ 부동산투자신탁, 각종 펀드의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⑤ 창업투자조합 또는 그 자회사

⑥ 재보험인수회사, 자가보험사(captive insurance)

(6) 제주금융감독청과 감독원 설립

제주 국제금융센터의 대외신뢰도를 초기부터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수준의 감독기구 설치가 필수적이다. 또한 역외금융센터로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신속하고 간편한 금융 및 조세제도 환경을 구비하기 위해서도 중앙과 분리된 독립적인 금융 감독당국의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방안으로서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한국은행의 전문가들을 지원 받아서 중앙의 감독기관과 독립된 감독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인원은 100여명 이상으로 해서 세계각국의 금융기관과 다국적 기업을 충분하게 제주센터로 유치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제주금융감독 청장은 차관급으로 하고 설립 및 운영예산은 한국은행 및 정부의 지원을 받도록 한다. 제주 국제금융센터는 동북아 금융센터를 구축하는 국가적 사업임을 충분히 납득 시켜야 할 것이다. 라부안의 경우도 역외금융센터 건설비용의 상당부분을 중앙은행이 부담하였다.

① 제주금융감독청의 업무

- 공무원조직으로서 제주 금융센터 설립과 감독·운영에 필요한 법제도 입안.
- 여타 정부조직과 협력 조정업무
- 대외협력(국제 및 제주지방정부)
- 제주금융감독원 지휘

② 제주금융감독원 업무

- 실제적인 감독집행, 검사업무
- 감독원장은 청장이 겸임 또는 외국인 전문가 영입.

여기서 감독원을 별도로 두는 이유는 모두 공무원조직으로 할 경우 인사, 급여상의 제한이 많아서 충분한 전문가를 제주에 유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7) 불법자금세탁기지, 국내금융시장 교란 가능성 등 반대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의 추진목표를 설정한다.

- ① 이미 동아시아 지역에서 활약하고 있는 유명 금융기관과 다국적 기업을 집중 유치한다.
- ② 원화 표시 금융거래 및 거주자와의 금융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국내 금융시장에의 교란효과를 차단한다.
- ③ 역외금융센터내 금융기관 직원의 거주조건을 의무화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금융감독기준을 전면 적용한다. 또한 해외 금융전문인력 스카우트, 교육 등을 통하여 금융감독조직을 세계적 수준으로 전문화한다.
- ④ 기존의 금융실명제법, 돈세탁방지법, 부패방지법은 제주 국제금융센터에도 그대로 적용되도록 한다.

참고문헌

강철준, “외환위기와 정부정책 실패요인 분석”, *한국의 금융외환위기와 IMF*, 경문사, 1998.

강철준, “21세기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경제적 의의와 추진방향”, *동아시아 연구논총*, 제10집,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1999.5.

강철준, “규제자유지역의 금융부문 모형”, *규제자유지역개념의 제주도 적용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00.5.

- 강철준(A), “제주국제금융시장(Jeju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JIFM) 추진계획”, 민주당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기획단 자료, 2001. 5.
- 강철준(B), “제주국제금융시장 형성 가능한가?,” *제주의 재발견*, 제주언론인클럽, 2002. 3.
- 서울파이낸셜포럼, *아시아 국제금융중심지로서의 한국: 비전과 전략*, 2002. 11.
- 정희식, “역외금융센터 현황과 우리나라의 설립 여건,” 한국은행 제주지점 경제교실 발표자료, 2000. 9.
- 한국은행제주지점, *말레이시아 라부안 국제역외금융센터(IOFC)의 현황과 평가*, 2001. 8.
- 한국은행제주지점, *아일랜드 더블린 국제금융센터(IFSC)의 현황과 평가*, 2001. 12
- Bill P. Brown, 「Offshore Financial Services Handbook」, Gresham Books, 2nd ed., 1999.
- BIS, Financial Stability Forum,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Offshore Centers”, April 2000.
- IMF, Offshore Financial Centers, 「IMF Background Paper」, June 23, 2000.
- Labuan Offshore Financial Services Authority(LOFSA), 「Annual Report」, 2001.
- Philip Molyneux and Nidal Shamroukh, 「Financial Innovation」, Wiley, 1999.